‘라이프 플래닝’ 핵심은 불교

〈Life Planning · 인생재무설계〉

재무설계사 조지 킨더, 부디스트도어 인터뷰서 강조

박정현 객원기자

“그는 저술 및 교육 활동을 통해 인간과 문명이 탐욕과 혐오에서 벗어나게 한다. 나아가 사람들이 돈과 인생에 대한 가치를 바로 알게 해 궁극의 자유에 이르게 한다.”

불교 인터넷 매체 부디스트도어(Buddhistdoor)는 재무설계사이자 명상 실천가인 조지 킨더(George Kinder · 사진)를 이렇게 표현했다.

부디스트도어는 8월 27일(현지시간) “지난달 동아시아의 작은 코너(홍콩)에서 그와 흥미진진한 시간을 보냈다”며 킨더와 홍콩에서 보낸 한 달간의 동행기를 소개했다. 킨더는 50년 이상 명상가로 활동했을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는 ‘라이프 플래닝 운동(Life Planning movement)’을 이끈 창시자로 통한다. ‘라이프 플래닝’이란 단순히 고객의 재무목표를 위해 일하는 재무설계사가 아닌, 고객의 삶의 의미와 돈을 결합시킴으로써 인생계획을 설계해주는 작업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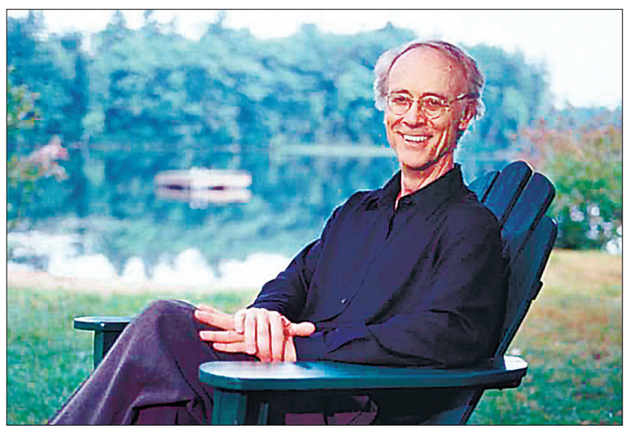
하버드대학을 졸업한 킨더는 지난 30년간 재무설계산업 내에 혁명을 일으켰다. ‘돈’과 ‘인생’을 통합의 가치로 엮는 구조화작업에 처음으로 착수한 인물이다. 가장 최근에는 새로운 형태의 라이프 플래닝 전문가들을 훈련시킨 공을

고객 인생계획 설계 전문가
재무설계서 보살요소 느껴
불교교단에서 불교 가르치며
자유와 같은 삶의 가치 강조

인정받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기조연설을 했다.

그가 강력히 주창하는 라이프 플래닝의 핵심은 다름 아닌 ‘불교’다. “재무설계 과정에 거대한 보살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내 업무는 어드바이저(고문)들에게 고객을 유치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라며 “재무설계사들은 보통 고객의 예산 및 세금 업무, 저축 및 투자 방법 등을 관리한다. 그런데 내가 주장하는 라이프 플래닝의 핵심은 ‘돈 관리’로 힘들어 하는 고객에게 우선 자유와 같은 삶의 가치를 일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며 나는 내면에서 물질주의와 영적 실천이 분리되는 것을 보았다. 특히 거대한 보살요소가 있다는 것을 깨우쳤다”며 “우리가 업무를 수행할 때 미덕으로 인식하는 친절, 관대함 등이 불교 전통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10여 년 전 미국의 금융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이 물질에 의해 고통 받는 것을 보면서 물질주의의 치료법이 ‘마음챙김명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그는 “명상은 ‘현재’를 삶의 중심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준다”며 “이로써 사람들은 우주를 물질주의적인 것 이상으로 끊임없이 진화하는 심리적, 정신적 함수로 이해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킨더는 50년 이상 활동한 명상 실천가로도 유명하다. 하와이, 보스턴, 런던 등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작은 불교 교단에서 불교를 직접 가르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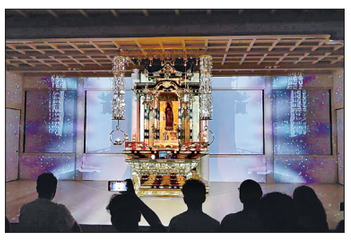
킨더는 “내가 불교를 이해하는 방법 중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해 아주 심오하고 깊게 듣는 것”이라며 “우리는 모두 공동체에 속해있기 때문에 인간 존재뿐만 아니라 사물의 본질에 대해서도 상당히 깊이 귀를 기울인다. 나는 부처의 놀라운 통찰력 중 하나가 ‘덧없음’에 대한 인식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덧없음은 모든 생명체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과 공간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 자신의 덧없음에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는 우주와 사물의 본질을 배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킨더는 마음챙김명상과 관련해 〈고뇌를 지혜로 바꾸기(Transforming Suffering into Wisdom, 2011)〉라는 책을 썼다. 가장 최근에는 〈황금문명과 명상의 지도(A Golden Civilization and The Map of Mindfulness, 2019)〉를 펴냈다. 국내에서는 〈조지 킨더의 라이프 플래닝〉이라는 저서가 번역, 출간됐다.

현대문화 기술 접목 포교 세계화 나선 日

도쿄 아라카와구 코묘지 외국 유학생 이목 집중



프로젝션 맵핑을 활용한 법회. 사진출처=재팬타임즈

항상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포교를 시도하는 일본불교계. 도쿄의 모 사찰에서 그간 시도됐던 방법들을 혼합해 외국 유학생들에게 선보이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뉴스를 8월 23일 일본의 ‘재팬 타임즈’가 보도했다.

8월 22일 도쿄 아라카와구에 소재한 코묘지(光明寺)는 힙합, 현대무용, 프로젝션 맵핑 등을 혼합한 불교 문화체험을 세계 각국에서 모인 30명의 학생들을 위해 준비했다. 이 체험 행사는 2012년 세계화가 빨라지는 현실에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개발 청년 포럼(International Development Youth Forum)’에서 기획한 행사 중 하나다.

이번 행사가 진행된 코묘지는 일반적인 사찰과는 달리, 역세권에 소재한 오피스텔을 개조해 만든 현대적인 사찰이다. 프로젝션 맵핑과 현대무용이 혼합된 예불이 먼저 봉행되고, 주지인 오하라 타츠노리 스님의 법문이 있었다. 타츠노리 스님은 “불교의 목적은 모든 종교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모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하는지 말하는 것이 불교”라고 강조했다.

이후 불교와 일본의 전통문화에서 모티프를 딴 힙합, 무용 공연과 함께 학생들이 직접 이를 체험해 보는 순서가 이어졌다.

4년간 일본에 거주해온 자메이카 출신은 게리 투조 씨는 “내가 지금껏 경험한 전통적인 사찰과는 달리 매우 현대적이어서 조금 회의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프로젝션 맵핑으로 불교의식을 바라보았을 때 너무나 놀라웠다”고 소감을 말했다.

영국에서 온 비비 린 씨는 “내가 생각했던 사찰과는 매우 달랐지만, 젊은 세대를 끌어들이는 요소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항상 심각하게만 생각했던 종교가 즐겁게 느껴졌다”고 전했다.

조우인 객원기자

태국 행자들, 게임 대회서 우승

“고교생 성장하는 시기, 관심사 탐구할 나이”

2019 콘카엔대학 농카이 박람회에서 열린 비디오 게임대회에서 행자들로 구성된 팀이 우승을 거머쥐어 눈길을 끈다.

이 박람회는 태국 북동부에서 열리는 연례행사로, 올해는 8월 15~18일(현지시간) 4일간 진행됐다. 각종 학술대회와 게임, 전자 스포츠 경기 등이 열린다.

행자들로 구성된 우승팀은 농카이 지역 내 행자들을 위한 고등학교인 바리 사싯 숙사(Balee Sathit Suksa) 소속 3학년생들이다. 이들을 인솔한 해당 학교의 교사는 “행자들이 대회에 나가고 싶어 해서 기회를 줬는데 정말 우승할 줄 몰랐다”고 웃어 보였다.

해당 교사에 따르면, 행자들은 매주 20시간 이상의 종교 수업을 듣는다. 다른 교과 과정 역시 대부분 전통 교육으로 이뤄진다. 그런데 이 중 컴퓨터 수업 시간에 행자들이 처음 비디오 게임 ‘스피드 드리프터(Speed Drifter)’를 접했고, 대회에 나가길 원했다는 것이다.



태국 농카이 지역 내 행자들을 위한 고등학교인 바리 사싯 숙사(Balee Sathit Suksa) 소속 3학년생들이 비디오 게임 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쥐었다. 사진출처=kotaku.com

물론 행자들이 비디오 게임 대회에 나가는 것에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다. 불법적인 게임은 아니지만 훗날 스님이 될 행자들이 가사를 입고 토너먼트 게임에 참여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다.

하지만 해당 교사는 “행자들은 아직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성장하는 단계다. 자신을 개발하고 관심사를 탐구하는 나이인 것”이라며 “행자들에게 여러 기회를 주는 것도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공양물도 유행 탄다… ‘버블티’ 인기

보수 불교도와 젊은 층 논쟁
최근엔 패스트푸드도 늘어나

불전에 올리는 공양물은 전통적인 관례가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대표적인 불교국가인 태국에서 버블티가 새로운 공양물로 인기를 끌어 화제다. 이 독특한 소식을 8월 24일 이탈리아의 인터넷 매체 ‘아시아 뉴스’가 전했다.

보통 사찰에서 공양물로 올리는 것들은 꽃이나 과일, 쌀, 향과 같은 것들이 선호된다. 또 각각에 의미도 전통적으로 전해오기 마련이다. 그러나 최근 태국에선 ‘버블티’라는 음료가 공양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버블티는 타피오카를 주재료로 한 ‘펄’이라고 하는 작은 경단이 들어간 음료수로 대만에서 시작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태국의 유명 음식비평가 파윤붓(Payunbud)은 지난 8월 18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버블티가 거리의 불단에 공양된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 속의 불단에는 버블티뿐만 아니라 유명 프랜차이즈의 커피까지 다양한 음료수가 함께 있었다. 태국 내 파윤붓의 유명세에 힘입어 해당사진은 몇 시간 만에 주요 온라인 매체와 SNS를 통해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공유됐다.



태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버블티 공양. 다양한 버블티와 음료수가 불단 앞에 올려져있다. 사진출처=트위터

보수적인 불교도들은 “신성한 장소에 유행처럼 음료수를 올리는 것은 다소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며 “오래된 전통을 부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국에서는 불단에 붉은색 탄산음료나 과일음료를 불단에 올리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젊은 층을 중심으로 ‘버블티 공양’을 올리는 것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한 지지자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부처님이) 몇 십 년씩 빨간 음료만 드시게 하는 게 더 심한 일”이라며 어떠한 공양물이든 간에 올리는 정성이 더 중요한 게 아니냐는 논지를 펼쳤다.

버블티 공양 논란은 이제 버블티를 넘어서 다양한 음식물을 공양 올리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SNS를 통해 게시되는 새로운 공양물들 가운데는 패스트푸드나 최근 가장 잘 팔리는 식음료를 모아 올리는 사진도 등장했다. 조우인 객원기자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황의동 도가마을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분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알갱이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분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우리몸 막힌혈관을 뻥!뻥!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루 2회 공복에
막힌 혈관을 뻥!뻥! 뚫어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혈관관리
혈통으로
맑은물에 희석해서 마십니다
혈관나이를 젊게하여 100세 건강실현
피가 깨끗해지면 정신도 깨어납니다
010-9003-6767 농협 : 010-9003-6767-29